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이 시대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것입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나아졌듯이
미래는 더 밝을 거라고.
'나'보다 '우리'의 힘을 믿으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된다고.
최태성 '역사의 쓸모' 중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 순간입니다.
터널 같은 시간을 빠져나와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있습니다.
때로 힘겹고, 때로 답답할 때도 생기겠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역대상 29:11)



세계관은 공기와 같습니다

김종철 전주동부교회 담임목사



2025년 을사년(乙巳年)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도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평안과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가족과 친구들,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떤 사람들과 살았느냐에 따라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이 결정됩니다. 이처럼 주변 환경은 공기와 같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세계관(世界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보는 관점(세계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는 관점에 따라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결정되고, 나아가 인생과 운명도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가 몹시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통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람들은 유교적, 불교적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와 달리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며 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세계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부모가 어떤 환경과 방식으로 키웠느냐에 따라, 자녀들이 세상과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식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종교와 문화는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 사람과 세상을 이

해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세계관은 한번 형성되면 끝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새롭게 형성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과 사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라’고 부르심 받은 제사장적 존재입니다(창세기 1:26). 하늘과 땅을 이어주며, 세상을 축복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제사장으로서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 시련 강제 합병

정희수 목사가 사역하던 기간은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던 일제가 전쟁에 한창 광분하던 시기였다. 이미 우리 땅에서 벌어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승리로 기세를 올린 바 있는 일본은 이 무렵 만주사변(1931년)과 중일전쟁(1937년) 그리고 인도차이나 침략(1940년)에 이어, 진주만에 주둔하던 미군을 기습(1941년)하여 태평양전쟁까지 일으키며 군국주의의 야욕을 한창 드러내고 있었다.

특히 전쟁에 몰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제는 한국인들을 향해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명목을 내세워, 일본식 이름으로 창씨 개명과 자신들의 전통 신앙을 따라 하도록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당연히 서양에서 유입된 기독교에 대해서는 극도의 탄압을 가했고, 미국의 스파이들이라는 혐의를 뒤집어쓰워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추방시켰다. 신사참배에 순응하지 않는 기독교 학교들은 차례로 문을 닫아야 했다. 한국교회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졌다.

결국 대표적인 개신교단들이 하나씩 일제의 압박에 차례로 굴복하고 말았다. 1936년 감리교 총회에 이어, 1938년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결의한다. 이를 거부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하다 목숨을 잃었고, 교회들은 폐쇄됐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었던 1940년 10월 정희수 목사의 뒤를 이어 이상귀 목사가 전주동부교회 제3대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이미 일제의 방해로 교회 예배가 중단되

기도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1941년 4월 18일에 제2대 최덕근 장로의 임직식을 거행하는 등 교회의 지속과 안정을 위해 이상귀 목사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교회들을 말살하려는 일제의 폭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거세졌다. 결국 전주동부교회는 1944년 전주중앙교회와 강제 합병되고 만다. 합병한 교회의 당회장을 김영후 목사가 맡으면서, 이상귀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잃고 물러나 익산으로 이주했다. 그 사이 예배당은 일본군이 수용해 군사시설로 사용했고, 해방이 오기까지 닫힌 문을 열지 못했다. 전주동부교회에 찾아온 첫 번째 암흑기였다.

| 정재영 기자

▶ 일제에 의해 다른 교회와 강제 합병을 당했던 암흑 시기에 전주동부교회를 담임했던 이상귀 목사



▲ 1941년 거행된 전주동부교회 제2대 최덕근 장로의 임직식

2025년 전주동부교회 전도위원회

- ▶ 위 원 장 | 안 효 건 장로
- ▶ 부위원장 | 김 중 후 집사 ▶ 담당권사 | 소 화 수 권사
- ▶ 총 무 | 정 소 연 집사 ▶ 서 기 | 이 승 은 집사 ▶ 회 계 | 김 은 아 권사
- ▶ 실행위원 | 교구장, 안수집사회장, 권사회장, 각 속회장, 대학·청년부 회장

2025년에도 열심히 복음전하며 섬기겠습니다!





성도들과 나누는 새해 덕담과 소망



2025년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누구에게나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건네주고픈 축복이 있습니다.

전주동부교회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남영** 원로장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하나님과 친숙하며 거룩한 생활과 기도생활에 힘쓰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김남기** 원로장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린도후서 5:17)는 말씀을 새해 덕담으로 <동녘>에 전해주셨습니다.

지나해 4월호 <동녘>의 인터뷰 주인공이었던 **최동욱** 집사님은 “아내 이희옥 집사와 함께 시작한 성경필사를 완결하는 것, 경영 중인 롯데리아 매장들의 이전과 운영을 잘 해내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 화목하고 크게 부흥하는 것”을 기도 중이라 밝혔습니다. 대학청년부 회장을 맡은 **정세현** 형제님은 “저를 비롯한 대청부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여기에서 두 분의 조금 특별한 덕담과 소망을 더해봅니다.

❖ 축복 가득한 새해 덕담 · 전봉권 원로장로

밤이란 빛이 사라졌음이 아니고 빛을 뒤로하고 등졌기 때문입니다. 겨울은 빛이 약해 추운 것이 아니라 빛을 받는 시간이 적기 때문입니다. 빛을 등지거나 막히거나 적게 받으면 우리는 춥고 어두운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난 겨울이 그랬습니다.

봄별, 그 따뜻함 하나로 세상의 모든 생명이 피어나 힘차게 자랍니다. 밝음, 그 하나로 모든 것이 보이고 느껴지고 또 움직이게 됩니다. 내 삶의 빛이 무엇인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늘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나를 밝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 나를 따뜻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의 새해를 새롭게

맞을 때가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더 큰 소망을 가지고, 환희의 송가가 울려 퍼질 만큼 복된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으로 따뜻한 한 가족이 됩시다.

❖ 전도왕의 더욱 야심찬 새해 소망 · 박영삼 장로

“전도상이요? 아니 왜요? 제가요?” 깜짝 놀라서 전도위원장님에게 되물으니 제가 올 한 해 동안 다섯 명을 등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 상식으로는 보통 수십 명을 전도하여 교회에 등록시켜야 전도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내가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5명 모두 모르는 사람을 전도한 것이 아니라, 관계전도 형태로 교회에 등록시킨 셈입니다. 병원장인 제게는 진료실이라는 공간이 있어 환자와 병에 대해서 뿐 아니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깁니다. 우리 병원 로비에 늘 찬양이 흘러나오고, 벽에는 성경말씀이 붙어 있는 것도 환자들과 자연스럽게 신앙에 관해 대화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환자들 중에 조직검사 결과 암 판정을 받는 경우, 될 수 있으면 기도와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애들이 아픈데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잠시 신앙생활의 방향 중이라고 하는 분에게는 아기 이름을 물어보고 시간 날 때 기도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교회에 등록한 분을 정착시키는 것도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고민하다가 새신자 양육교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성도들과 주일에 만나 함께 다과를 나누며, 새신자교육을 통해 교회 정착을 돕게 될 것입니다. 왕관까지 써보긴 했지만 아직도 전도왕이라는 타이틀이 어색합니다. 내년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고자 더욱 노력하고, 그래서 올해보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등록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이현미·정소연 기자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요

성탄절 맞아 축하행사 이어져



2024년의 성탄절은 이 땅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분위기 속에서 다가왔다.

12월 24일 밤에는 교육위원회(위원장 최병국 장로)와 신도관리위원회(위원장 신형곤 장로) 주관으로 성탄전야 축하행사가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 유치부 소속 윤시온 정에서 정하준 어린이들의 첫 인사로 시작하여, 영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등 각 교육부서에서 아기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순서들로 1부가 장식됐다.

2부에서는 메호라워십팀, 바이올린연주자 이선민 권사, 남성중창단 그리고 추수감사절 찬양제에서 우수한 '원하

고 바라고' 여성합창단 등이 출연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양남영 장로의 독창과 박영삼 장로의 첼로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 송윤강 장로와 인정환 집사 가족들이 함께 꾸민 무대, 은퇴장로들이 목소리를 합한 무대 등도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12월 25일에는 성탄축하예배가 마련됐다. 김종철 담임목사는 '별을 보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성탄메시지를 전했고, 박진철 집사가 지휘하는 전주동부교회 연합찬양대는 칸타타 '일어나라 빛이 오신다'를 연주했다. 올해 성탄절 헌금은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사업에 사용된다. | 이승은 기자

“성실과 헌신으로 일할게요”

각 속회·부서 2025년 섬길 일꾼 세워



2025년 전주동부교회 여러 속회와 부서를 이끌어갈 일꾼들이 결정됐다.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 각 조직 임원들은 성실과 헌신으로 한 해 동안 섬길 것을 다짐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갈 이들

의 분투를 기대한다.

다음은 각 속회·부서의 회장명단. ▲안수집사회 : 하기찬 집사 ▲베드로회 : 양남영 장로 ▲1남전도회 : 안중호 집사 ▲2남전도회 : 서호임 장로 ▲3남전도회 : 정성필 집사 ▲4남전도회 : 김병국 집사 ▲5남전도회 : 이기종 집사 ▲1권사회 : 김효순 권사 ▲2권사회 : 봉옥란 권사 ▲마리아회 : 서점례 권사 ▲1여전도회 : 조현자 권사 ▲2여전도회 : 양화영 권사 ▲3여전도회 : 신옥숙 권사 ▲4여전도회 : 진서금 권사 ▲5여전도회 : 임순 권사 ▲6여전도회 : 백성연 집사 ▲대학청년부 : 정세현 ▲중고등부 : 장수영. | 윤미영 기자

이제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

하반기 새가족환영회 개최

2024년 하반기 전주동부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새가족환영회는 전도위원회(위원장:안효건 장로) 주최로 12월 28일 전주 연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종철 담임목사는 '더 이상 외인도, 나그네도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선언했다. 또한 새가족들에게 앞으로 교회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힘써 참여하고, 말씀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 신앙성장을 이루어가자고 당부했다. 이



날 환영회는 예배와 새가족 소개에 이어, 모든 참석자들이 오찬을 함께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 최조경 기자



패니 제인 크로스비

찬송가 21편의 작사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참 능력의 주 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1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2절)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내 모든 짐 벗기시네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3절)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4절)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손으로 덮으시네.”(후렴)

위 노랫말은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다. 이 찬송시의 원제는 ‘내 영혼을 숨기시네’(He hideth my soul)로, 패니 제인 크로스비(Fanny Jane Crosby, 1820~1915)가 70세 때인 1890년에 쓴 것이다. 그녀는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중 21편의 노랫말을 쓴 놀라운 인물이다.(도표 참조)

패니는 1820년 3월 24일 미국 뉴욕 주의 브루스터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존 크로스비와 머시 크로스비의 외동딸로 태어났다. 부모의 조상은 1620년 메이 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 북동부로 건너온 청도교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다.

패니가 생후 6주가 되었을 무렵 감기에 걸려 눈에 염증이 생겼는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가 겨자씨 가루를 묻힌 습포제를 눈에 붙였다. 패니의 훗날 회고에 의하면 이 치료법은 그녀의 시신경에 영원한 손상을 가했고, 결국 그 후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한다. 아버지는 패니가 태어난 지 6달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서, 그녀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패니는 8세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 15세부터 23세까지 뉴욕 맹인학교에서 공부했고, 이후 1847년부터 11년간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다. 그녀가 이 학교 교사이던 시절에 그로버 클리블랜드(Grover



Cleveland, 1937~1908)라는 18세 청년이 그녀의 시를 옮겨 적는 일을 했는데, 이 청년은 후에 정치가로 성장하여 제22대 및 제24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38세 때인 1858년에 패니는 같은 시각장애인이었던 알렉산더 알스타인(Alexander Van Alstyne)과 결혼하여 한 아이를 낳았지만 불행히도 아이는 유아기에 사망하였다.

이 경험은 후에 그녀가 찬송가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Safe in the Arms of Jesus)를 쓰는 데 영감을 주었다.

패니 크로스비는 95세 때인 1915년 2월 12일 그녀가 살던 코네티컷 주의 브리지포트에서 세상을 떴고, 브리지포트의 한 공동묘지에 묻혔다. 그녀의 묘비에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Blessed Assurance)의 노랫말이 된 찬송시가 새겨져 있다.

| 박승배 집사 (전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패니 크로스비가 만든 찬송가 목록	
47세 주와 같이 되기를(454장)	55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540장)
48세 인애하신 구세주여(279장)	그 큰 일을 행하신(615장)
주 예수 넓은 품에(417장)	56세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176장)
49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31장)	60세 기도하는 이 시간(361장)
십자가로 가까이(439장)	63세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531장)
저 죽어가는 자다 구원하고(498장)	65세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40장)
51세 너희 죄 흉악하나(255장)	70세 오 놀라운 구세주(391장)
53세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288장)	71세 주가 맡긴 모든 역사(240장)
주께로 한 걸음씩(532장)	72세 후일에 생명 그칠 때(608장)
54세 나의 영원하신 기업(435장)	
나의 생명 되신 주(380장)	
55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384장)	

전시

CBS 국제 성경필사본 전시회



기독교방송(CBS) 창사 7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국제 성경 필사본 전시회’가 11월과 12월 두 달 간 전주시 용정동 전북CBS사옥 1층 전시실에서 열렸다. 성경필사본 전시회는 2012년 전북CBS 창립 51주년 기념전 이후 네 번째로 열렸으며, 국제 규모의 행사로 열린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9개국에서 120여 명이 참여해, 각자 필사한 150여 점의 성경 필사본을 출품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불가리아 등 다양한 국가의 필사본이 소개되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성경, 교도소 수감자의 필사본, 탈북 성도의 필사본 등도 포함되었다.

전시된 작품 중에는 단순히 노트나 종이에 필사한 성경뿐만 아니라 두루마리, 달력, 목판 등에 예술적으로 표현한 필사본 성경도 있어 관람객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전함과 동시에 흥미도 더해 주었다. 특히 화선지 5,016장에 붓글씨로 신구약 전체를 필사한 황선춘 장로(논산 강경 체산교회)의 필사본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 12월을 끝으로 종료되었지만, 전북CBS 김용완 대표는 출품자들로부터 기증받은 필사본을 보관하고 상설 전시할 수 있는 수장고와 전시공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미처 관람하지 못한 분들은 조만간 이들 필사본을 다시 만나볼 날을 기대할 수 있겠다. | 김형열 기자

<동녘>을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 김 중 철
 편집인 : 안 호 건
 제작팀 : 정재영(팀장)
 김형열 윤미영 이승은 이현미 정소연 최조경
 발행처 : 전주동부교회 전도위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관삼덕로 88
 전화 (063) 275-7760 홈페이지 www.cjdb.or.kr

<동녘> 제작을 후원하신 분들

고정희 곽약훈 구길수 김광휘 김극명 김금자 김남기 김덕기 김미영 김병국 김숙희 김옥순 김은숙 김장중 김재현 김중후 김진숙 김효순 노명우 박선규 박영대 박영삼 백성연 백은순 봉옥란 소화수 안한성 안호건 양이성 오윤자 은경옥 은희삼 이동주 이복구 이선민 이승은 이정숙 이정희 이준례 이현미 이홍승 이홍재 인정환 임선영 임 순 장희선 전봉권 정소연 정숙자 정재영 진서금 진금자 최근수 최금이 최남열 최동욱 최명국 최범석 최순미 최완주 최원진 최조경 하기찬 한준석
 (가나다순 · 2024년 12월 28일 현재)

전도편지 <동녘> 제작을 후원하실 분들은 1구좌당 5000원씩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계좌 > 카카오뱅크 3333-29-3293494 이현미

당신을 동넉으로 초대합니다

만약 여러분 일상에 무슨 고장이 생긴다면 보통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가벼운 고장이라면 혼자 힘으로 해결해볼 것이고,
심각한 고장이라면 제품설명서를 열심히 뒤적이며 답을 살피거나
서비스센터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겠지요.

하지만 그 고장이 내 인생을 뒤흔들 만큼 절대 사소하지 않고
수리점이나 병원에서조차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어찌해야 하나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 가장 완벽하게 고쳐주실 수 있는 분
지금 이 순간, 그분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주동부교회는 한국교회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중전주 노회 소속으로, 1933년 10월 15일에 설립되어 9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특히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따르는 공동체로서 정체성과, '학생교회'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다음세대 사역에 전념하여 큰 열매를 거둔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새벽예배		매 일 05:00		본당
주일 1부		일요일 09:00		본당
주일 2부		일요일 11:00		본당
찬양예배		일요일 15:00		본당
수요예배		수요일 19:30		본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20:30		본당
영유아부		일요일 11:00		교육관 1층
유치부		일요일 11:00		본당 지하 1층
유초등부		일요일 11:00		교육관 2층
중고등부		일요일 09:00		교육관 3층
대학청년부		일요일 13:00		본당 4층
부부모임		일요일 13:00		지정 장소

오시는 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88 063) 275-7760

<동넉>은 전주동부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jdb.or.kr)와 네이버카페(cafe.naver.com/dongnyeok) 페이스북(www.facebook.com/groups/dongnyeok)을 통해서도 구독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전도대상자 발송, 구독소감, 후원, 이벤트 등의 문익는 네이버카페와 이메일(dong.nyeok@naver.com)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